

한국반	읽기	수업/ 숙제
-----	----	--------

한글 첫 수출, 인도네시아 부족 공식 문자 채택: MBC 뉴스데스크

◀ANC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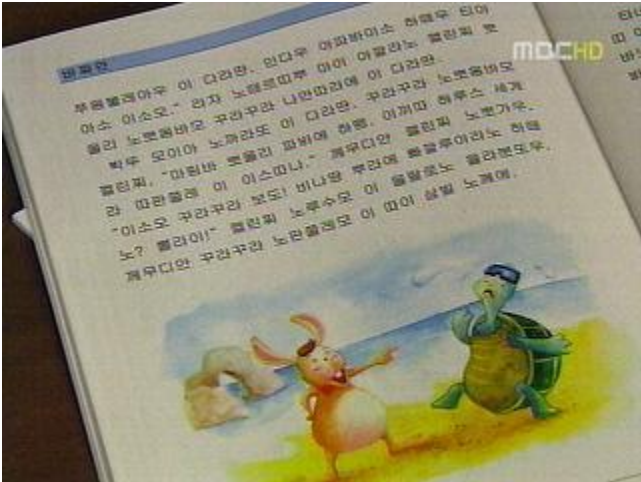
문자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한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말을 표현하는 글자로 한글을 채택했습니다.
한글수출 1 호 사례가 됐습니다.

노경진 기자입니다.

인도네시아의 한 초등학교.

선생님이 한글로 쓰여 진
교과서를 들고 설명을 하자,
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
경청합니다.

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아닌데
글자는 한글입니다.



인도네시아 부툼섬
바우바우시에 모여 사는
4 만여 명의 짜아찌아족은
오래전부터 써온 고유어가 있지만
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습니다.

때문에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도,
후대에 고유의 말을 가르칠 수단도
없었습니다.

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훈민정음학회가
이들을 찾아 한글을 전했고,
마침내 한글이 공식문자로 채택되면서
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부족언어를
보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.

◀INT▶ 이호영 교수/훈민정음학회,서울대 언어학과
"이 언어는 한국어하고 발음도
좀 비슷한 소리들이 많이 있고,
그 다음에 음절 구조도
한국어하고 아주 비슷해요.

그래서 한글로 문자를 적기에
아주 적합합니다."

바우바우시는 앞으로
지역 표지판에도 한글을 표기하고,
한글로 된 역사책과 민담집도
출간하기로 했습니다.

24 개 자음과 모음만으로

소리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을
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로
인정한 결과입니다.

◀ I N T ▶ 사르바르/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
"배우기 쉬운 것 같습니다.
한자나 일본어나 중국어보다."

전 세계 6 천여 개 언어 가운데
문자를 지니고 있는 언어는 불과 3 백여 개.

한글의 우수성을 잘 알리기만 한다면,
한글이 다른 민족의 문자,
곧 세계적인 문자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
가능성이 이번 사례에서 입증됐습니다.

MBC 뉴스 노경진입니다.

■ 노경진 기자

Reading & Comprehensions 숙제

1. 찌아찌아족은 왜 한글을 그들의 공식 문자로 채택 했나요?

2. 한글이 찌아찌아족의 언어(말)를 문자로 적기에 적당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?

3. 인구 4만의 소수민족의 한글 공식 문자 채택의 의의는 무엇이라 생각 하나요?
